

'잘 나가는 불자회' 비결은...?

잘되는 일터불자회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 그렇다. 어떤 비결을 갖고 있을까. 설마 일은 뒷전이고, 실행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잘 나가는' 직장불자회 2곳을 찾아 운영노하우를 알아보았다. 19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은행 불

자회와 새내기 신행모임 인천공항경찰대 불자회. 이들 불자회 활동을 '별점 평가'로 내린다면, 불교계 인지도, 법회활성화 정도, 특목 특는 신행프로그램 등을 감안해 능히 만점인 ★★★★★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각자 할 일만 잘하면 모임 저절로 굴러가요”



‘금융계 불자회의 터줏대감’ 한국은행불자회원들. 19년간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법회를 열고 있다.

금요일 점심시간 ‘즐거운 공부’ 19년간 한 주도 안 거르고 정진

한국은행 불자회(회장 강화중·금융결제국장)는

한국은행 불자회

85년 금융계 최초로 창립되어 올 1월에 900회 법회 봉행이란 기록을 세웠다. 1989년 전국금융단불자회 결성을 주도했던 한국은행 불자회는 그동안 석주, 무진정, 월주, 압도, 대행 스님과 미당 서정주, 고은 선생 등 꾸준한 공부해 결핵한 선지식들을 모셔왔다. 큰 스승들이 불자회의 뼈대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한국은행 불자회는 지금도 매주 금요일 점심 시간이면 <법화경>, <달마관심론>, <불교경전집문> 등을 공부하고, <금강경>을 사경한다. 공금했다. 이처럼 지속적인 신행 활동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1월 27일, 은행 본점 시청각실에서 만난 회원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회원들의 ‘이심전심’이 대단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회원들 대부분이 금요일 점심 시간엔 다른 약속을 안 잡아요. 한 자 한 자 공부하는 재미가 너무나 크거든요.”
 윤석필 고문(54·시설운영팀장)이 말한

다. 김난희 재무(41·결제업무 과장)도

한마디 거든다. “드러나지 않지만 각자 불자회 일을 알아서 해요.”

젊은 인사이들에게도 안정적인 불자회 운영이 가능한 이유. ‘알아서 한다’는 것이다. 법사 섭외, 법회 공지, 전화 및 전자우편 연락, 목탁 집전, 법회 참석 독려 등 일은 많아도 소임을 맡은 회원들이 ‘꼭 부러지게’ 해내고 있기에 불자회 운영에 허접이 생길 틈이 없다.

“불자회 소임은 말 그대로 심부름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일부 불자들은 모임을 만들기도 자신은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 불자회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먼저 찾아서 척척 해내니 불자회가 잘 돌아갈 수밖에 없지요.”

안규용(48·안정분석팀 차장) 간사장과 하윤이(51·정책기획국 수석부국장) 간사는 자신의 소임만 잘 해도 세상이 잘 돌아가는 도리를 강조했다.

“극락같은 공항 만들자는 공감대로 회원 영입 박차”



인천공항경찰대 불자회. 2년이란 짧은 기간에 회원을 두 배로 늘렸다.

창립 첫해 직원 절반이상 회원으로 산악회·합창단 등 만들어 활동

인천공항경찰대 불자회 전인배(55·경위) 회장은

인천공항경찰대 불자회

“불교는 우리나라의 자존심”이라는 말부터 했다. 이 같은 자부심은 새내기인 ‘불자회’를 단연 불교계에서 돋보이는 신행모임으로 성장케 했다. 지난해에 전 회장은 인천공항에 불자회 깃발을 세우고, 122명 전채 직원의 절반 이상을 불자로 만들었다.

“한국의 관문에서 근무하는 경찰로서, 불자로서 느끼는 자부심으로 극락같은 공항을 만들고 싶다는 소원이 불자들의 공감대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불자회 배영수 고문(47·경정의)의 말이다.

인천공항경찰대 불자회가 빠른 성장세를 보인 비법은 두 가지. 지난해 1월 경찰대 내에 불교산악회(회장 이찬우, 불자회 감사)를 결성해 부담 없는 신행활동의 장을 마련했고, 불교계 처음으로 전·의경 친불가 합창단도 조직했다. 특히 전·의경 합창단은 음역배 불자회원이 직접 지휘봉을 잡기도 했다. 지금은 경찰청 합창경연대회에 도전장을 던졌다. 또 한 가지. ‘불도저 3인방’의 노력도 큰

몫을 했다. 전인배 회장, 박관규 총무(55·경위), 이찬우 감사가 바로 그들. 이들은 불자회 창립 이전부터 입회 원서 받으려 잠실 운동장의 60배에 달하는 공항을 구석구석 누볐다. 또 공항을 출·입국하는 스님들을 극진히 모셨고, 전·의경들에게는 사비를 털어가며 간식을 챙겨주었다. 대한민국의 관문에 불교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서원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다.

“늘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친목계가 아닙니다. 불자모임이다’라고요. 이런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앞으로 더 부지런히 뛰어가고 해요.”

인천공항경찰대 불자회는 올해 ‘큰 일’을 내기 위해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공항에 입주한 정부기관, 항공사, 용역업체 20여 개 단체의 불자들이 참여하는 인천공항불자연합회의 창립을 준비하는 일이다. 오는 3월이면 공항공사, 법무부, 민항기 조종사 등의 단위 기관 불자회가 창립된다. 글=김철우·사진=고영배 기자

우리불자회는요

서초반야회

<대방광불화엄경> ‘이세간품’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배웁니다. ‘이세간(離世間)’에는 부처님의 법을 들은 중생이 세간에 있되 속세에 물들지 않는 게 ‘연꽃이 더러운 물에 썩지 않는 것’(如蓮華不着水)과 같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그 어떤 유혹과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사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부동심(不動心), 여기에서부터 자비·평등의 마음을 다잡고 성불의 인연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반야회는 불자 법조인들의 신행 모임입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사회법의 판단과 적용을 통

안동 불경사, 문경 불암사, 예산 수덕사, 경주 천룡사, 수원 용주사, 남양주 봉선사 등 법향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이처럼 우리 반야회의 왕성한 활동은 전국에 법조인 모임 결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선 96년에 당시 사법연수원 김희옥, 이인재 교수가 前 조계종 종정 서암 큰스님을 모신 가운데 다르마 법우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뿐인가요? 94년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98년 청주지방법원, 99년 창원지방법원, 2000년 수원법조인 불자회 등을 줄줄이 창립시켰습니다.

‘부동심 닦기’ 법회와 성지순례 매진 전국 법조인 불자모임 결성 산파역



서초반야회는 자비·평등의 지혜를 배우는 법조인 불자들의 모임이다. 지난해 4월 간월암 순례법회 때 장면.

해 소리 없이 회향하고 있는 일터 불자회입니다. 창립은 지난 1995년 2월,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에서 일하는 불자 판·검사, 변호사, 법원 및 검찰청 직원, 법무사 50여 명이 모여 첫 달을 열었습니다. 당시 손수일 판사가 우연산 대성사 도문 스님을 친견하면서 모임이 본격화됐고, 지금은 회원이 150여 명으로 늘어나 대표적인 불자법조인 신행 단체가 됐습니다.

우리 반야회의 자랑은 단연 빠짐 없이 봉행하는 법회입니다. 매달 셋째 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대성사에서 법회를 갖습니다. 도문 스님의 법문과 참선, 그리고 법우들과 나누는 법담은 언제나 지친 심신을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신행 활동은 여기에만 머물지 않지 않습니다. 매년 전국의 사찰을 찾아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영주 부석사, ■박홍우 총무

우리 반야회는 올해부터 젊은 불자 법조인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최근 들어 불교계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에 진출한 두 분의 변호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사법연수원 내 불교모임인 다르마 법우회와도 정기적인 합동법회를 봉행해 불자 법조인들을 한 데 묶어내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주 모여 법에 대해 논하고,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성지순례를 분기별로 정례화해 불교문화를 자주 접하는 기회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우선 올해는 강원도 상원사, 정암사, 법흥사 등 적멸보궁을 순례하는 성지순례를 기획할 방침입니다. 특히 부처님 법에 의지해 ‘파사현정’을 실천하는 불자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7일 명상으로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로드프라나 명상이란?

프라나(감로, 생기) 호흡법과 로드프라나 36가지의 각종 명상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상승시키는 기법.

◆로드프라나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잠자던 몸이 깨어나 몸속에 황금빛 광채가 생기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원을 이루고 개인 의식이 무너져 우주 의식으로 확장되어 집중력, 이해력이 증대되어 지혜의 눈이 생긴다.

◆ 누구나 길을 찾아 원하는 삶을 열어준다.

◆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고요의 평원 속으로 이끌어 준다.

◆ 삶에 지친 몸과 마음에 프라나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 가진 것은 잃게 되고 배운 것은 남듯이 내가 클수록 장애가 심하고 내가 작을수록 세상이 가벼운 것. 간. 쓸개 빼고 살면 부자가 될 수 밖에 없고 속을 텅 비우면 모든 일이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진다.

◆ 지금까지 길을 찾지 못한 것은 개체의식, 고정관념, 자기의 틀을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기육백공, 선밀공, 프라나호흡, 프라나 동작, 36장 관조·관음법을 통하여 우주 의식으로 확장시키면 스스로 알지 못했던 길을 찾게 된다.

◆길타기 3단계

- ▶ 1단계 : 능력확대 (의식확장, 시, 노래, 춤, 연주, 그림 등)
- ▶ 2단계 : 지혜의 눈 (달념, 예시, 투시, 치유 능력)
- ▶ 3단계 : 전인완성 (본래의 자리에 들)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 과정)

다른 차원의 세계 (우주세계)로 못가는 것은 의식과 생각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식 집중을 통해 영혼체 정신체 인 분신을 만들어서 유체이탈을 통하여 천문 제6세계까지 영체와 우주세계를 연결한다.

◆전문열기

- 제 1세계 (우주세계, 합일신계) → 제 6세계 (우주세계, 자재신계)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과정)

◆명상지도자 양성과정 (1년)

- 자격 : 24세 ~ 33세까지
- 학력 : 고졸이상
- 수련과정 : 로드프라나 36장, 프라나호흡, 난소호흡, 원룡공, 관조, 관음, 관상법수련, 선밀공, 오기육백공

로드프라나 명상센터 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729-4
 ☎ 053)471-0433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쉽게 포교하며,
 21세기의 풍요로운 삶을 생활불교의 실천수행으로.....

금강불교대학 2004년도 신입생 모집

(사이버 동영상강좌 = <http://www.kkbuddha.net>)

1. 모집과정
 불교기초과정
 불교 전문 과정-(포교사)
 장례지도사 과정-(장례지도사)
 공통 : (컴퓨터기초, 기초의식, 경전)
2. 모집방법
 인터넷으로 원서접수 및 등록
3. 개 강
 2004년 2월 7일
3. 입 학 식
 2004년 3월 6일(토) 오후 1시

● 특전(자격) : 포교사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장례지도사 (한국장례업협회)

문의 : 금강불교대학 (www.kkbuddha.net)
 경남 창원시 동정동 708-48번지 (641-490) 전화: (055)253-0108 / 전송: (055)296-6200